

패션쇼 메이크업의 반미학적 특성 연구 - 형태 표현을 중심으로 -

변영희*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Anti-aesthetic Characteristics of Fashion Show Make-up - based on expressions of shape -

Byun, Young-Hee* · Chae, Keum-Seok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4. 1. 14.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nti-aesthetic shapes have been expressed in Fashion Show Make-up from 1995 to 2003 and to enlarge the possibility of expressions through various formative elements and to anticipate the prospect of the Make-up in the future. Anti-aesthetics means the beginning of criticism that destroy the system of modernism and the anti-aesthetic shapes in Fashion Show Make-up have been distorted, deformed, destroyed through asymmetrical arrangement or abnormal transformation or extreme reduction or omission and so on. It means that is to enlarge the range of expressions through a new interpretation. The anti-aesthetic characteristics in Fashion Show Make-up can be summarized as Avant-garde, Satire, De-construction, Poverty, inhumanity and most of shapes show experimental techniques in unlimited method. The differences at the turning point in 21C is to increase the experimental attempts such as informal and collage and graphic Make-up and so forth.

Key Words : Anti-aesthetics(반미학), Exaggeration(과장), Deformation (왜곡)

I. 서 론

1. 연구 목적

20C 이후 문화와 예술의 전반적인 특성은 여러 장르간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혼합 및 붕괴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향은 메이크

업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여러 이미지를 反美學的 觀點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해온 반미적 이미지 메이크업의 경향을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조형요소를 응용한 다양한 표현과 반미학적 패션과의 관계를 통해 반미적 메이크업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고 미래의 토털 패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Corresponding author : Byun, Young-Hee

E-mail: yohee2@hanmail.net

2. 연구 내용 및 방법

첫째, 反美學의 개념 및 회화와 패션에 표현된 반미학적 경향과 특성을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패션쇼 메이크업에 표현된 반미학적 특성을 형태를 중심으로 점·선·면·형의 디자인 요소로 구분하여 각각의 표현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셋째, 반미학적 패션쇼 메이크업에서 보여지는 과장, 모방, 변형, 파괴, 은폐 등의 외적 특징에 따라 전위, 풍자, 해체, 빈곤, 비인간성 등 5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문의 이론적 고찰 및 관련 내용은 선행 연구와 패션 및 미학 관련 서적을 기초로 하였고, 메이크업에 관한 시각자료는 1995년부터 2003년에 발행된 패션 잡지나 디자이너 컬렉션 인터넷 페이지를 참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디자이너 100여 명의 작품 400여 점을 선정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반미학(反美學)의 개념

할 포스터(Hal Foster)가 언급하는 反美學이란 단순한 미나 이성에 대응하는 감성으로서의 반미학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 체계의 추구¹⁾라는 점에서 초(超)미학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코바타 준코(木幡順三)는 조화·질서·비례 등의 이성에 대응하는 감성(美的)을 반 미학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반미학이라 함은 모더니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모더니즘의 기존 질서를 와해시키는 비판의 시작으로 경계를 해체하여 체계화 및 동질성에 대한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다²⁾. 이와 함께 스톨리니츠(J. Stolnitz)는 미가 현대 미학 이론에서 퇴장·소멸했다 하였고³⁾, 아도르노(th.w.Adorno)는 현대 예술에서의 '탈 심미화(de-aestheticization)'는 예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미적 특질이 최종적으로 붕괴됨으로써 미·조화·균형 등의 고전적 미적 준거들이 의식적으로 파괴되는 결과라고 하였다⁴⁾. 고대로부터 반미적 개념으로서 추가 언급되었는데醜란 미가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며,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쾌·미의 결핍이라는 관점으로,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추를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하위 요소의 개념으로 보았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추를 형태의 결함과 질서의 결핍에서 온다 하였고, 가다머(H. G. Gadamer)

는 미와 추란 상대적인 개념으로 서열화할 수 없으며, 추를 완성이 아닌 가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2. 예술에 나타난 반미학적 형태

1) 회화에 나타난 반미적 형태

반미적 형태를 띄는 여러 회화 중 본문에서는 표현주의,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추상 표현주의를 예로 들었으며, <표 1>을 통해 정리해보았다.

(1) 표현주의(Expressionism)

20세기 초 자유로운 감정의 표출을 기초로 한 예술 사조로써⁶⁾ 원시예술의 단순한 형태로부터 과기적인 생명력을 받아들여 상징과 생략을 통한 과장·왜곡·추상의 형식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⁷⁾. 칸딘스키(Kandinsky)는 <사진 1> '흰 형체가 있는 작품'에서 사물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선과 형태로 추상적인 회화를 창시하였다.

(2) 입체주의

주어진 공간 안에서 서로 연관된 면들을 옮겨가는 새로운 평면적 원근법을 창조하였는데 입체주의의 창시자인 피카소(Pablo Picasso)는 여러 각도에서 대상을 분석적으로 관찰하여 형태를 파괴·재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의 작 '아비뇰의 아가씨들'에서는 신체가 단순한 평면과 파편들로 분할·변형되어 있다<사진 2>.

(3) 초현실주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억제된 연상의 실재성을 기초로⁸⁾ 현실을 잠재적인 꿈의 경험과 융합시켜 초월적인 상태로 변형시켰으며, 감정과 직관에 의해 파악하였다.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의 작 <사진 3> '기억의 집착'에서는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환각적 이미지나 꿈속의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4) 추상표현주의

다다의 반 예술 정신과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을 동원해 즉흥적인 작품으로 발전시켰으며, 에너지와 액션 및 동적인 행위와 열광적인 상태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드 쿠닝(Willem de Kooning)의 작 '여인 I'에서는 여성을 상징하는 젓가슴·스커트와는 대조적으로 해골 같은 처절한 인상의 여성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사진 4>.

<표 1> 회화에 나타난 반미학적 형태

경향	반미학적 형태			
				
	<사진 1> 표현주의	<사진 2> 입체주의	<사진 3> 초현실주의	<사진 4> 추상표현주의

<표 2> 패션에 나타난 반미학적 형태

경향	반미학적 형태			
해체적 경향				
	<사진 5> 차연	<사진 6> 상호텍스트성	<사진 7> Dis, De탈현상	<사진 8> 불확정적 원리

2) 패션에 나타난 반미학적 형태

현대 패션은 각 영역간의 무제한적 상호 교류에 따른 탈 경계화 및 장르의 혼합 현상으로 인해 개념 정의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양식을 들기 어렵다. 특히 전통적인 형이상학 체계나 기존의 디자인 원리를 무시한 형태의 반미학적 특징은 패션의 해체적 경향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표 2>에서와 같다. 해체적 경향⁹⁾은 이제껏 소외되어 왔던 주변 문화였던 동양, 여성, 추, 빈곤 등의 개념을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시킴으로써 이분법적 표현 방법을 파괴한다. 즉, 시·공간의 초월을 의미하는 차연<사진 5>, 일원화를 거부하는 상호 텍스트성<사진 6>, 탈중심·탈구성·전위 등의 무질서한 디자인 원리를 제시하는 Dis·De 탈 현상<사진 7>, 일정한 척도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한 유연성을 지향하는 의미의 불확정성 등이 해체적 경향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사진 8>. 분해 혹은 파괴된 의복, 입기 불가능한 의복, 대칭적 구성에서 벗어난 의복 등 반미학적

패션은 기존의 정형화된 형태 및 구성요소를 거부·파괴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해체를 통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III. 형태 표현에 따른 패션쇼 메이크업의 반미학적 표현

패션쇼 메이크업은 의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지만 무대의 성격, 시즌, 디자이너 브랜드 및 컨셉을 고려하여¹⁰⁾ 다양한 형태와 색채로 디자인된다. 특히 1990년 이후에는 형태 파괴·왜곡·불완전성 등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醜의 미가 패션과 메이크업 전반에 걸쳐 본격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III장에서는 패션쇼 메이크업의 반미적 형태 표현을 조형의 기본 요소인 점·선·면·형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반미적인 메이크업의 형태는 주로 대칭·비례·균형·조화 등의 통일성 및 디자인 원리를 파괴하

는 실험적 성격을 띄고 있다. 즉, 한 부분만 강조·과장하여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강조에 상반된 축소 및 생략에 의한 부조화와 비정상적인 추상적·기하학적인 실험적 형태 및 의도적인 파괴와 더럽힘으로 인한 무 형태 등을 들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를 조형요소 및 형태의 종류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표 10>을 통해 재정리하였다.

1. 조형 요소에 따른 분류

1) 점 (spot)

점은 수많은 형태의 근본적인 요소로써 크기가 방향은 갖고 있지 않고, 위치만을 표시하며 주로 원이나 면으로 표현된다. 점은 최고도의 간결함과 억제된 표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메이크업에서 보여 지는 점의 형태는 얼굴의 형태를 돋보이게 하는 메이크업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띤 실험적 형태로 보여 진다. 즉, 얼굴의 비례·균형을 무시한 비대칭적·실험적 표현을 통해 부조화를 유발한다.

<표 3>의 <사진 9>는 2002년 봄 Guy Laroche의 컬렉션으로 얼굴 형태와 무관한 검은 점을 눈 주변에 흩뿌리듯 비대칭적으로 그려 넣어 미적 부적절함과 동시에 실험성을 보여준다.

<사진 10>의 2001년 봄 Seredinet Vassiliev는 점 모양의 붉은 색 인조 보석을 한쪽 눈에만 원의 형태로 붙여 의외적 웃음을 유발한다.

<사진 11>의 2002년 가을 Alexandre Herchovitch는 얼굴 전체에 점의 형태를 검게 칠해 괴기스럽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었다.

2) 선 (Line)

디자인에서 선은 외양 전체를 지배하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문양으로 사용될 때 '굵기나 길이'에 따라 인상이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시각적 요소이다. 선은 점이 이동한 흔적으로 공간에서의 방향성과 운동성을 지니며, 그 자체의 독자적인 감정을 갖는데 직선은 속도감·긴장감 및 남성적 요소가 강한데 반해 곡선은 유연함·약동감 등의 감정을 지닌 여성적 요소가 강하다. 그리고, 사선은 속도감·불안 등의 속성을 나타내는 등 선이 표현되어질 때에는 선의 종류 및 강약에 따라 동적·정적인 성격이 복합적으로 표출된다. 메이크업에서는 한 쪽 부위만 강조, 형태의 과장·확대를 통해 불균형을 초래하며, 다양한 이미지를 차용·모방하여 실험성을 보인다.

반미학적 메이크업에 나타난 선의 형태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사진 12>의 2000년 봄 Alexander McQueen은 언더라인을 직선적 요소로 강하게 표현하여 이집트 풍의 눈 화장을 차용하였으나 지나치게 과장되어 공격적인 느낌을 준다.




<사진 13>의 2003년 봄 Zaldi 쇼 메이크업은 검정 아이라인을 강조한 복고 무드를 연상시키며, 새 눈의 형태와 같이 인위적으로 표현하였다.

<사진 14>의 2001년 봄 John Galliano는 다채로운 여러 형태의 선을 눈과 코 주변에 사선의 형태로 그려 넣어 실험적으로 표현하였으나 미적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

3) 면 (plane or surface)

면은 점의 확대나 선이 이동한 궤적을 의미하는 것

<표 3> 점에 의한 표현

		
<p><사진 9> Guy Laroche, 2002, sp</p>	<p><사진 10> Seredinet Vassiliev, 2001, sp-haute</p>	<p><사진 11> Alexandre Herchovitch, 2002, fall</p>

<표 4> 선에 의한 표현

		
<사진 12> Alexander McQueen, 2000, sp	<사진 13> Zaldi, 2003, sp	<사진 14> John Galliano, 2001, sp

으로 면의 기본 형태인 원형, 삼각형, 사각형은 각각의 상징과 의미를 지닌다. 원은 무한(無限)과 하늘을 상징·부드러움과 동적인 느낌을 갖으며, 정방형은 땅을 의미·남성적 느낌과 안정감을 준다. 삼각형은 세속을 의미¹¹⁾·불안정한 느낌을 갖는데 이러한 의미나 이미지와는 무관한 여러 실험적 형태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을 이용한 표현도 다른 표현들과 같이 얼굴의 이·목·구·비를 무시하여 대칭·비례 등의 통일성을 파괴하거나 여러 이미지를 차용하여 추상적·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들어 낸다.

<표 5>의 <사진 15>는 2001년 봄 Hussein Shalayan의 컬렉션으로 얼굴 한쪽 면에 미적 요소와는 관계없는 노란색 안료를 넓게 칠하여 실험성과 의외적인 웃음을 보여준다.

<사진 16>의 2003년 봄 Alexander McQueen은 눈 두덩이 전체를 웅덩이 모양으로 검게 칠해 눈의 형태를 은폐함으로써 혐오스럽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만든다.

<사진 17>은 2003년 봄 Boudicca의 쇼로 얼굴에 그래픽 요소를 가미하여 표현의 무제한성을 보여주는데 얼굴의 양감을 무시·눈 주변을 병자처럼 검게 칠하여 괴기스러움을 준다.




2. 형태의 종류에 따른 분류

형태는 형으로 구성된 윤곽 및 지각되는 대상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로 위치와 방향을 제외한 사물의 공간적 면모를 갖는다. 형태에는 실제적인 형태를 뜻하는 구상(사실)적인 형태와 그와 반대되는 추상적·기하학적인 형태 및 파괴적 표현을 포함한 무 형태로 나눌 수 있다.

1) 구상적 형태

구상적 형태는 동물을 모티브로 하거나 실제 대상

<표 5> 면에 의한 표현

		
<사진 15> Hussein Shalayan, 2001, sp	<사진 16> Alexander McQueen, 2003, sp	<사진 17> Boudicca, 2003, sp

<표 6> 구상적 형태

<p><사진 18> John Galliano, 2002, fall</p>	<p><사진 19> Alexander McQueen, 1997, fall</p>	<p><사진 20> World, 2001, sp</p>

을 묘사하되 주로 파괴·변형하여 비현실적으로 표현한다. 즉, 얼굴의 형태를 완전히 무시하고 혐오감과 공격성이 내포된 동물적 요소를 풍자적으로 묘사하여 파괴성과 전위성을 보이는데 <표 6>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사진 18>은 2002년 가을 John Galliano의 쇼로 하얗게 분칠한 얼굴에 작은 입술을 그려 넣은 일본풍에 새 눈의 형상을 변형·새의 깃털로 한쪽 눈을 강조한 꼴라쥬 기법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그 로테스크하게 표현하고 있다.

<사진 19>는 1997년 가을 Alexander McQueen의 컬렉션으로 눈의 형태를 짐승과 같이 변형·병적인 기운이 감도는 불건전한 분위기로 묘사하여 혐오스러움을 준다.

<사진 20>의 2001년 World는 하얗게 분칠한 얼굴 위에 본래의 위치를 무시하고 엉뚱하게 배치·불필요한 선을 가미하여 실험적 기교를 보여준다.

2) 추상적 형태

일정한 사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무제한적으로 표현하는데 펄이나 클리터링의 질감을 이용해 차가운 비인간적·사이버적 이미지를 만들거나 비대칭·불균형의 비정상적인 형태를 통해 부조화를 초래함으로써 실험적 전위성을 보인다.

<표 7>의 <사진 21>은 1999년 가을 Philip Treacy 무대 메이크업으로 반짝이는 글리터링 소재를 사용·알아볼 수 없는 형태를 얼굴에 칠해 반인반수의 비인간적인 차가운 이미지를 만들었다.

<사진 22>의 2003년 봄 Andre Lima는 눈 주변을 검게 칠한 후 그 위에 금색으로 알아보기 힘든 형태를 그려 넣어 오히려 지저분한 느낌을 준다.

<사진 23>은 2003년 Alessandro Palombo의 쇼로 한쪽 눈에 여러 색을 이용·추상적 형태를 그려 넣고, 다른 한쪽은 아이라인만을 칠하여 부조화된 이미지를 만든다.

<표 7> 추상적 형태

<p><사진 21> Philip Treacy, 1999, fall</p>	<p><사진 22> Andre Lima, 2003, sp</p>	<p><사진 23> Alessandro Palombo, 2003, sp</p>

<표 8> 기하학적 형태

<p><사진 24> Fendi, 2002, sp</p>	<p><사진 25> Abhishek Gupta, 2003, sp</p>	<p><사진 26> Dai Rees, 2002, sp</p>

3) 기하학적 형태

기하학적 형태는 도시적·상징적 표현으로서 복잡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일정한 법칙에 근거하여 구성되므로 시각적으로 강렬한 효과를 유발하는¹²⁾ 실험적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대칭 및 균형적 요소를 파괴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모방·변형함으로써 전위적 해학성을 엿볼 수 있다.

<표 8>에서와 같이 <사진 24>의 2002년 봄 Fendi는 눈썹 주변에 점과 불의 형상으로 기하학적 문양을 표현해 원시적인 느낌을 주나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사진 25>는 2003년 봄 Abhishek Gupta의 쇼 메이크업으로 얼굴 중앙에 기하학적·비대칭적인 형태를 그려 넣어 얼굴을 미적 대상이 아닌 기호의 형태로 평가 절하시킴으로써 미적 부적절함을 보여준다.

<사진 26>의 2002년 봄 Dai Rees는 아이라인을 과장하고, 볼 주변에 번개 모양의 지그재그선을 기하학

적인 형태로 변형시켜 실험적으로 표현하였다.

4) 무형태

무형태는 얼굴의 형태 및 윤곽을 생략·은폐함으로써 어떠한 형과 색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이 중 파괴적 형태는 완성된 형태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거나 특정 부위만을 변형·과장하는 등의 왜곡을 통해 심리적 정서에 충격을 주며, <표 9>에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사진 27>의 1997년 가을 Philip Treacy는 얼굴의 형태를 모두 생략·눈썹과 속눈썹까지도 하얗게 만들어 병적·비인간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사진 28> 위의 사진과 반대로 2001년 Victor & Rolf는 얼굴 전체를 검게 칠해 이·목·구·비 형태를 은폐시킴으로써 비정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사진 29>의 2003년 봄 Alexandro Palombo는 뼈이로와 같이 과장된 형태를 비대칭적으로 그린 후 의

<표 9> 무형태

<p><사진 27> Philip Treacy, 1997, fall</p>	<p><사진 28> Victor & Rolf, 2001, fall</p>	<p><사진 29> Alexandro Palombo, 2003, sp</p>	<p><사진 30> Antonio Berardi, 1997, fall</p>

<표 10> 조형 요소에 따른 패션쇼 메이크업의 반미학적 특성

조형요소	특 징	표 현	반미학적 특성
점	1. 가장 최소, 기본 형태 2. 방향 부재	1. 원·면의 형태로 표현 2. 비대칭적 표현	1. 난잡한 형태 - 불균형, 부조화 유발 2. 해체적 구성
선	1. 가장 중요한 시각 요소 2. 방향성·운동성 내포 3. 선의 종류나 強弱에 따라 동적·정적 성격이 복합적으로 표출	1. 直線: 속도감·긴장감 및 남성적 요소 2. 曲線: 유연함·약동감 및 여성적 요소 3. 斜線: 속도감·불안감	1. 한 부분만 과장·강조 - 불균형·부조화 유발 2. 여러 선의 형태를 사용 - 복합적 표현
면	1. 점의 확대 및 선이 이동한 궤적	1. 원형: 부드러운과 동적 인 느낌 2. 정방형: 남성적 느낌과 안정감 3. 삼각형: 세속 및 불안정	1. 영역 무시: 균형의 부재 2. 통일성·규칙성 배제 - 부조화 3. 실험적 표현
특성	1. 대칭, 비례, 균형, 조화의 통일성 무시·파괴	1. 파괴·변형 : 추상·기하학적 형태 2. 위치 전환 또는 한쪽 생략 및 의도적 파괴	1. 모방·차용 및 단순화 2. 실험적·비정상적 표현 3. 변형·파괴에 따른 적대적, 인위적 성질 내포

도적으로 파괴하여 미적 표현의 부적절함을 보여 준다.

<사진 30> 1997년 Antonio Berardi는 형태 표현이 아닌 얼굴 전체를 어둡고 지지분하게 만들어 뷰티 메이크업과는 상반되는 더러운 메이크업을 선보였다.

IV. 형태에 따른 패션쇼 메이크업의 반미학적 특성 분석

21세기를 전후로 기존의 전형적인 조화 개념을 무너뜨리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며,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남성·여성, 과거·현재, 미·추, 동양·서양적 요소 등 상호 대립적인 측면을 결합시켜 그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패션쇼 메이크업은 형태·색채·질감·소재 등의 변형과 왜곡을 통해 묘사되는데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더해갈수록 반미학적·극단적 미의식은 더욱 선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IV장에서는 III장의 반미학적 형태에서 보여지는 여러 특성 - 과장·축소, 변형·왜곡, 생략·은폐, 의도적 파괴 - 등을 전위, 풍자, 해체, 빈곤, 비인간화 등의 5가지 개념으로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1. 반미학적 특성

1) 전위 (Avant Garde)

전위란 실험성을 바탕으로 한 무제한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목·구·비 본래의 형태를 무시하고 좌우 대칭·균형·조화·통일감 등 기존의 전형적

인 디자인 원리를 거부·자유로운 감각과 형태로 묘사하여 부조화와 불균형 등을 유발한다. 전위적 표현의 하나인 추상적 형태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미와 감각에 초점을 두어 다양하게 표현되며, 과장과 극단적 묘사를 통한 비정상적인 형태는 그로테스크하게 표현되어 혐오감과 기괴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즉, 형태를 통해 보여지는 전위성은 불필요한 선이나 추상적·기하학적 형태를 그려 넣는 것에서부터 얼굴 형태를 생략·은폐하여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다.

2) 풍자 (Satire)

20세기를 통해 지속되는 회의와 불안은 인간의 정서를 황폐화시키고, 불신 등의 위기의식을 불러왔으며, 이는 성에 대한 탐미적 경향 및 도덕의 타락 현상으로 나타나¹³⁾ 인체에 인위적·자극적 장식을 하는 등 불건전한 퇴폐적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성적 욕구나 공격적 성향이 불건전하게 표출되거나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인간의 악한 내면이 비판적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형태와 색이 지나치게 과장된 비정상적 이미지¹⁴⁾나 혐오스런 문양 및 타투(Tattoo), 병적인 분위기 등으로 풍자되어 반미학적 이미지를 추구한다¹⁵⁾. 예를 들면 얼굴 전체를 검은 점들로 가득 메워 혐오스러움을 주거나 짐승의 공격적인 형태로 변형 또는 눈 주변을 병자처럼 검게 칠하여 병적인 기운이 감도는 불건전한 분위기로 만들어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을 풍자하듯이 묘사한다.

3) 해체 (De-construction)

여러 장르간의 무제한적 수용은 '경계의 해체'를 야기 시켜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하고 있으며, 성·문화·기존 방식의 해체 등 여러 경향으로 보여지고 있다. 메이크업에서는 얼굴 본래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부조화된 형태를 그려 넣어나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등 기존 방식에 반대되는 모든 형태 표현을 뜻한다. 즉, 성의 해체를 의미하는 '혼성'이나 문화의 해체인 하위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의 관점에서 각 각 앤드로지너스와 핑크를 예로 들 수 있다. 앤드로지너스는 직선적인 형태로 남성적 강인함을 표현하거나 얼굴 곡선의 형태를 모두 생략함으로써 성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핑크는 눈 주변을 웅덩이 모양으로 과장·확대하여 검게 칠하는 등 핑크적 요소를 차용함으로써 형태를 지나치게 과장·변형시킨다.

4) 빈곤 (Poverty)

더러움에 감추어진 진실을 예술로 승화시킴으로써 더욱 진실 된 것으로 만들고자하는 과시적 빈곤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¹⁶⁾. 메이크업에서는 얼굴의 형태를 무시·완성된 메이크업을 고의로 일그러뜨려 파괴함으로써 不完全한 美를 추구하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도 표현하지 않고 단지 어두운 색으로 지저분하게 만들어 얼룩·오염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完成에 대한 반어적·역설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기존 미의식의 파괴를 통해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비인간화 (Inhumanity)

미래의 비인간적 사이버 이미지나 世紀末의 디스토피아(distopia)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얼굴 형태를 모두 생략하여 불안전하게 만들거나 얼굴을 마스크로 은폐시켜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를 주기도 한다. 즉, 메이크업의 비인간적 특성은 미래의 사이버 이미지나 동물·악마적 형태를 띤 것으로 각 각 얼굴 형태를 은폐하거나 사선 형태로 과장하는데 오히려 형태에 의한 표현보다는 광택 소재로 글리터링(glittering) 효과를 내거나 펠·반짝이는 소재¹⁷⁾를 발라 차갑게 묘사하는 등 질감과 색을 활용해 기이할 정도로 하얗게 과장한다.

V. 결 론

1990년 이후 다양한 패션 경향과 함께 실험적 메이

크업이 시도되기 시작하면서 반미학적·충격적인 醜의 美가 메이크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미적 특질이 왜곡·변형된 패션에서와 같이 대칭·비례·균형 등의 디자인 원리를 거부함으로써 형태적 측면에서의 반미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먼저 점의 표현은 눈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적 형태가 많았고, 선은 굵기와 강약에 따라 가장 많이 변형되어 시도되었으며, 면은 얼굴의 비례·균형을 무시한 일그러진 형태나 기하학적 형태로 부자연스러움을 표현했다. 또한 형태를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더럽히거나 완성된 메이크업을 고의로 파괴하는 경우도 많이 보여 진다. 이러한 메이크업의 형태에 표현된 반미학적 특성은 크게 전위·풍자·해체·빈곤·비인간성 등 5가지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색채·질감·소재 등 모든 조형요소에 있어 무제한적인 실험적 기교가 엿보인다.

즉, 모든 디자인 원리를 무시함으로써 미적 질서를 파괴하는데 얼굴의 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어떠한 특성도 존재하지 않는 모호하고 불완전한 추상적·기하학적인 형태 및 무형태를 만들며, 표현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하여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21C를 전후로 해서 보여 지는 차이는 추상, 플라주, 그래픽 메이크업 등 실험적 형태의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현이 더욱 광범위해졌다는 점이며, 이는 문화 전반에 걸쳐 '다원성'과 '불확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계속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반미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메이크업의 미적 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메이크업의 표현 범주를 확대·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미래의 반미학적 패션과 메이크업을 예측·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형태뿐 아니라 색채, 질감, 소재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한 메이크업의 실험적 표현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패션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Hal Foster(1994). 반미학; 포스트모던 문화론. 윤병희 역역. 서울 : 현대미술사, pp. 15-27.
- 2) 김민자(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연구(I)-반미학(Anti-Aesthetics), 열린 패션(Open-fashion)을 중심으로. 복식, 38, p. 109.

- 3) 블라디슬로프 티티르키비츠(1994). 여섯 가지 개념의 역사. 이용대 역. 서울 : 이론과 실천, pp. 175-178.
- 4) 서성록(1995). 현대 미술의 쟁점 서울: 재원, p. 198.
- 5) 윤순향(1985). Karl Rosenkrantz에 있어서의 추의 미학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김래현(1990). 표현주의 문학운동의 성격과 문제점-표현주의 문학론. 서울 : 민음사, p. 139.
- 7) 이명재(1991). 현대미술에 있어서 원시적 상징성의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31-45.
- 8) Edward Luice Smith(1969). 전후현대미술. 임영방, 김춘길 공역(1981). 서울 : 장학사, P. 33.
- 9) 김현미(2000). 현대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9-13.
- 10) 김희숙, 이연희, 이화진(2001). 뷰티&스페셜 메이크업. 서울 : 신정 출판사, pp. 66-68.
- 11) 권영필(1979).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서울 : 열화당, pp. 51-96.
- 12) 채금석(2002). 현대복식미학(개정판). 서울 : 경춘사, pp. 159-160.
- 13) 김현미(2001).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장미숙(1999).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 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1990년대 후반 캣워크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김현미(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정진영(2002). 벨기에 패션 디자인의 반미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송영경(1999). 현대 복식에 나타난 디스토피아 경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52-53.